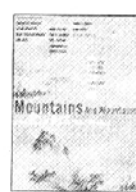


해외신간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다=미국인 불자의 가슴을 10여년간 잡아왔던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다(Mountains and Riv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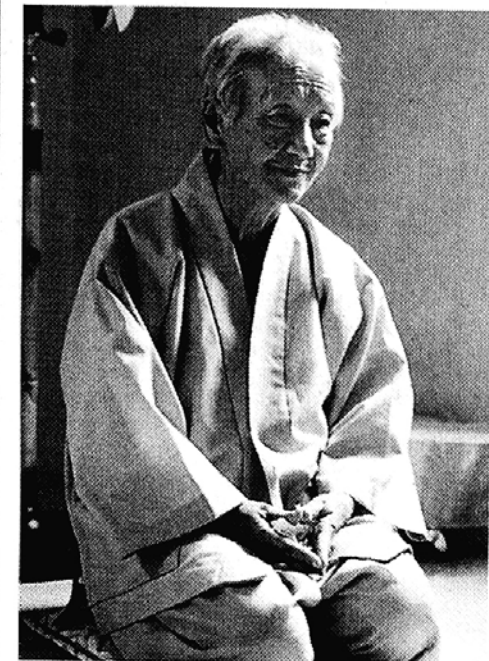
Hyperion 출간, ISBN 0786864761 ▲새로운 지각의 눈을 뜨고=티벳 불교를 알고 싶은 불자들에게 유익한 책이 출간됐다. 달라이 라마, 텐진 가초등 티벳 불교 종파와 겐록파의 지도자들이 불자의 길을 제시한 <새로운 지각의 눈을 뜨고(Opening the Eye of New Awareness)...

Wisdom Publications 출간, ISBN: 0861711556 ▲선(禪)과 컴퓨터=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선'을 발견한다. 필립 수도의 <선과 컴퓨터(Zen Computer: Mindfulness and the Machine)...

Simon & Schuster 출간, ISBN 0684854090 오종욱 기자 (gobaocu@buddhopia.com)

흐르는 물처럼 사는 '中道의 삶'

이남덕 수상집 '여든살의 연꽃 한송이'



◇일생동안 학문의 길을 걸다가 불법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정년퇴임후 구도의 길을 걷고 있는 이남덕씨.

“70세에서 80세 사이의 정신과 육체 건강관리 실재를 여기 한데 묶었습니다. 글을 쓰는 이유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공감하자는 데 있지요.” 동아대·숙명여대·이화여대 국문과에서 후학을 가르치다 86년 정년 퇴임하고 경기도 포천 죽엽산 자락 말구리 마을과 갑사 대자암에서 대자연과 벗하며 구도생활을 하고 있는 이남덕씨(80)가 수상집 <여든살의 연꽃 한송이>(불광 刊)를 내놓았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공감하자”라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의 속살은 적어도 동생공존의 중도사상을 담고 있다. 88년 청화스님과의 만남 이후 매년 안거와 글쓰기를 병행해 온 이남덕씨가 낸 이 책은 자신의 수행을 일기형식으로 객관화시킨 신심의 결정체다. 그는 “인간의 삶이란 어떤 것이 참다



그것조차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참생각을 가질 때 깨달음을 얻는다. 진리를 갈망하는 구도심이 강렬하면 할수록 어떤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다”가 이 책의 수행이념 중 하나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 번씩 철야 정진을 하고 매년 안거수행을 한다. 저자가 수행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중도(中道)를 얻기 위함이

다. 이 책에 실린 글에서도 중도사상을 간단없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저자의 생활공간 곧 처처가 수행공간인 셈이다. 참선과 노동 그리고 일상의 단상을 적은 이 책속에서는 해묵은 된장처럼 진한 수행의 향기가 묻어 나온다. 이 책은 정년퇴임후 참선을 시작하면서 월간 불광지에 매달 기고한 내용으로 <두메산골 앉은뱅이의 기원>의 후속편이다. 또 이 책에는 선학특강 3편을 비롯 중도의 길, 생명의 글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물렁물렁한 물결이 심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3기 80세 출발의 소원이라는 이남덕씨는 “연꽃 한송이로 상징되는 불교의 무아·무소유의 가르침이 언제나 환한 빛으로 내 가슴에 남아 있기 때문에 행복과 감사를 가지고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로 짙게 소감을 말했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opia.com)

김재웅 법사의 영문번역서 '닦는 마음 밝은 마음' 미국서 인기 상한가

김재웅 법사의 영문 번역서가 미국 서점가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닦는 마음, 밝은 마음>의 번역서 <POLISHING THE DIAMOND, ENLIGHTENING THE MIND>가 화제의 책. 보스턴에 있는 위즈덤 출판사가 올 1월에 출간한 이 책은 초판이 3개월만에 매진, 최근 2쇄를 낼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용화출판사가 90년 출간한 이 책은 김법사의 제자인 한운상씨(28·뉴저지 거주)가 서양인들과 한인 2세에게 소개할 목적으로 번역했다. 현재 버지니아 윌리엄 앤 메리칼대에 재학중인 한운상씨는 “불교에 대한 서양인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로 초신자들이 쉽게 이해할 만한 불교 서적들이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책은 금강경의 내용을 우리 실생활과 접목시켜 설명하고 있어 불교에 무지한 서양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쓰여져 있다”고 출판 동기를 밝혔다.

달라이 라마가 쓴 추천의 글과 함께 총 1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김 법사가 스승인 백성욱박사(前 동국대 총장)에게 들은 법문과 자신의 수행여정, 도량을 찾아온 젊은 구도자들과 나눈 대화 등을 서술하면서 한국불교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책방·여시아문 등 시중서점과 인터넷서점인 아마존닷컴 종교사이트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값 2만5천원>

현제 버지니아 윌리엄 앤 메리칼대에 재학중인 한운상씨는 “불교에 대한 서양인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로 초신자들이 쉽게 이해할 만한 불교 서적들이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책은 금강경의 내용을 우리 실생활과 접목시켜 설명하고 있어 불교에 무지한 서양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쓰여져 있다”고 출판 동기를 밝혔다. 달라이 라마가 쓴 추천의 글과 함께 총 1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김 법사가 스승인 백성욱박사(前 동국대 총장)에게 들은 법문과 자신의 수행여정, 도량을 찾아온 젊은 구도자들과 나눈 대화 등을 서술하면서 한국불교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책방·여시아문 등 시중서점과 인터넷서점인 아마존닷컴 종교사이트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값 2만5천원>

이북출 판/신국판/350쪽/값 10,000원

이제는 집에서든 온 가족이 손쉽게 법회를!

가정법회

모든 불자들을 위한 가정법회 안내서

삼귀의·반야심경 봉독·5계 수지문 낭독·찬불가·성구 및 해설·발원문·사홍서원



신행활동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삶의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될만한 내용을 아함부경전에서 가려뽑은 성구와 그 의미를 드러내주는 해설, 축원이나 감사는 물론 각종 행사나 절기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작성된 발원문, 온 가족이 날마다 요일을 정해놓고 혹은 특별한 날에 가정법회를 진행한다면 훌륭한 불자가정은 물론 삶의 지혜와 교훈,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북출 판/신국판/350쪽/값 10,000원

이북출 판/신국판/350쪽/값 10,000원

이북출 판/신국판/350쪽/값 10,000원

이북출 판/신국판/350쪽/값 10,000원

이북출 판/신국판/350쪽/값 10,000원

이북출 판/신국판/350쪽/값 10,000원

'초기불교의...' '상웃따 니까야 1·2·3' 남방대장경 개론서-경전 출간

남방대장경 개론서와 초기경전이 나란히 출간됐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 회장이 펴낸 <초기 불교의 연기사상>과 <파라리대장경 상웃따 니까야 1·2·3>(한국빠알리성전협회 刊)가 그것이다. <초기불교의 연기사상>은 초기불교에서의 인과관계를 설명한 연구서. 이 연구서의 특징은 복전(아함경)에 대한 근본원리인 '차유고피유(此有故彼有) 차생고피생(此生故彼生) 차무고피무(此無故彼無) 차멸고피멸(此滅故彼滅)'이라는 일반원리로 파악하여 사성제를 연구한 것이다. 이 책은 전교수가 95년 제출한 박사학위논문들을 재편집한 것. 복전의 잡아함경에 해당하는 경전인 <상웃따 니까야>는 초기경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에 가까운 경전이다. 1권은 부처님과 하늘사람과 악마와의 대화 등이 수록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경전이다. 2권과 3권은 연기법에 대하여 부처님과 제자들의 단론을 상세히 밝힌 경전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북출 판/신국판/350쪽/값 10,000원

■보르헤스 탄생 100돌 작품·사상 '재조명'

8월 24일로 탄생 1백주년을 맞은 20세기 문학의 거장 루이스 보르헤스(1899~1986)의 문학작품 및 사상 재조명 작업이 활발하다. 보르헤스는 <보르헤스의 불교강의>(여시아문 刊)가 출간되면서 교계에 널리 알려진 작가. 탄생 1백주년을 맞아 국내에서는 서울대 스페인·중남미 연구소가 18일 '보르헤스와 아르헨티나 근대문학의 형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민음사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열기>를 내놓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전시회, 다큐멘터리, 낭독회 등의 행사가 펼쳐졌다. 보르헤스는 많은 불교서적을 탐독할 정도로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불교강의>를 저술했을 뿐 아니라 말년에 실시한 문학강연에서 “불교는 구원의 길이였다”고 고백할 정도. 대표작 <알레프>도 깨달음의 세계를 더욱 치밀하게 묘사하기 위해 쓴 소설이다.

이북출 판/신국판/350쪽/값 10,000원

새책불자 위한 극본집 함재수씨 '소책세의 울음'

아동문학신인상을 수상한 함재수씨(49·한국불교 청소년 포교문제연구원)가 첫 어린이 극본집 <소책세의 울음>을 펴냈다. 함재수 어린이 극본집 <소책세의 울음>은 <부모는 중생>을 통해 불교의 기본 사상이나 인연의 진리를 일깨워주는 '어린이의 글', 도심 근교 포교원인 은애원을 무대로 등자스님에게 예불과 공부 그리고 선행을 하라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종이화' 등 15개의 극본이 실려 있다. 또 유아들을 위한 극본 9개도 수록돼 있다. 저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물은 교훈적이고, 문학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 극본집은 연극으로 어린이들에게 보다 더 가깝게 다가 설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발간의 의의를 밝혔다. 미래에 刊, 값 7천원.

이북출 판/신국판/350쪽/값 10,000원

현지 않은 만남

대만 성운스님의 불법홍포 원력

“불교가 나를 의지하게 할 결심을 해야 내가 불교를 의지할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대만 최대의 사찰인 불광사를 건립하고 전 세계 150여개의 말사를 운영하며 인간불교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성운스님. 수행하면서 겪었던 자신의 일상과 불법포교의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의 교훈과 삶의 지침 등을 적은 수상록 <현지 않은 만남>을 이인욱씨가 편역했다. 성운스님의 불법홍포의 원력을 담은 이 책은 월간 구도지에 매일 연재되었던 내용을 간추려 엮은 것이다. 운주사 刊, 값 6천5백원.

이북출 판/신국판/350쪽/값 10,000원

자유가 두렵다

깨달음을 향한 선승의 삶 '옛보기'

“마침내 구속에서 벗어난 육체가 갈 곳이 없다. 막연히 자유를 갈구했을 뿐 그 자유의 용도를 알지 못했다. 나는 자유가 두렵다. 해제를 맞았으나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것이다.” 출가후 재방선원에서 정진하고 있는 노우스님이 펴낸 신간 <자유가 두렵다>는 수행자로서의 고민과 애잔함, 도반들과 신도들의 모습을 보여 깨달아 가는 율곡의 고(苦), 도를 구하고자 출가할 때와 지금의 마음자세를 돌이켜보며 자신을 재직질하는 열정이 담겨 있다. 우리출판사 간, 값 7천원.

이북출 판/신국판/350쪽/값 10,000원

노우스님 지음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top 10 Buddhist books for the week.

구입문의:(02)737-0695

Advertisement for '가정법회' (Home Dharma Gathering) with a bird illustration and text about family Buddhist practices.

Advertisement for '불교와 유학' (Buddhism and Confucianism) by 賴永海, discu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hilosophies.

Advertisement for '한문해석법' (Korean Hanja Interpretation Method) by 심재동, a modern method for understanding Hanja.

Advertisement for '初發心自警文' (Text for Self-Warning of the Beginner) and a '1999년도 불교서적 종합목록' (1999 Buddhist Book Catalog).